

The Effect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on Self-esteem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Cheung Sook Choi^{1#}, Yeon Ran Hong^{2*}

¹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Gongje-ro, Gangneung-city, Gangwon-do,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si, Jeollanam-do, 57922,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their self-esteem and clinical competence.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19 nursing students in grade 3 and 4 enrolled in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G province of South Korea,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72.7%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mostly from patients (74.9%) at general ward (64.9%). It is also found that, when experiencing harassment, they sought help from a nurse or head nurse and wanted the hospital to get involved to resolve the issue.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ir experience with sexual harassment and their self-esteem and clinical competence. This study has contribution on providing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create a saf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through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Key words: sexual harassment, self-esteem, clinical competence

1.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은 의사, 간호사, 건강관리 요원, 환자, 보호자, 방문객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의사, 동료간호사 및 기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

계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Park, 2011). 여성 전문직종의 하나인 간호의 경우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많은 수의 의사가 남성이라는 성(gender)적 문제와 병원 구조상 경영자와 고용인의 형태와 같은 전통적인 병원의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간호사는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Gjerberg & Kjolsrodb, 2001; Lee, *et. al.*, 2011; Wang, *et. al.*, 2012). Keely(2002)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가

The 1st author: Cheung Sook Choi, Tel. +82-33-610-0101, Fax. +82-33-610-0198, e-mail. 4009@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Yeon Ran Hong, Tel. +82-61-750-3883, Fax. +82-61-750-3880, e-mail. yrhong@suncheon.ac.kr

그룹보다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 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희롱, 언어폭력, 따돌림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1). 의사, 간호사 10명중 9명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중 8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KBS News, 2018. 11. 5.). “2016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간호사 중 70%가 가장 가까워서 돌본 환자에게 당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충격을 주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 교육과정이 병원과 지역 사회 기관 등에서 졸업할 때까지 1,00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5) 간호 학생들은 학교와 병원,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실습 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 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실습을 하게 된다. 간호학과와 임상실습은 특성상 부서별 실습 기간이 짧고 실습부서 혹은 실습 기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낮은 환경에서 새로운 대상자 및 의료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수립하고 적응해야 하므로 상호관계 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Lee, *et. al.*, 2011) 더구나 간호대학생들은 병원내 타 의료인들에 비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간호전문직 관련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하여 임상실습기간 동안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Arulogun, *et. al.*, 2013).

임상실습 중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를 조사한 외국의 경우 281명의 간호사와 20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Brinner, 2003) 브라질, 호주, 타이완을 포함한 7개국에서의 25~72.6% 의료 종사자들이 성희롱과 폭력을 경험하여 전 세계적으로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되었다(Martino, 2016).

국내 연구(Lee & Song, 2011; Kim, 2014; Kim, *et.*

al., 2017)에서 과반수 이상의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피해자의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동료와 환자의 간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Lanctôtin, 2014; Celik, 2007; Celik, 2004) 우울과 슬픔은 물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진다(Arulogun, *et. al.*, 2013). 또한 성희롱 피해 경험은 자신감, 자존감을 저하시키고(Mckenna & Boyle, 2016) 나아가 간호학과 선택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다른 학과로 전과를 결심하는 등 전문직 간호사로 사회화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Budden, *et. al.*, 2017).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혼돈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졸업 후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임상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Chu & Jean, 1998) 임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이직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Bang & Cho, 2008). 임상 실습에서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만족감, 성취에 대한 동기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인의 업무에 대한 효능, 위기 상황의 극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Ko, 2013; Celik, 2004).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임상 실습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활용 가능성으로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Park & Na, 2015; Kim & Park, 2019). 또한 임상 실습 중에 나타나는 임상 수행 능력은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다(Barrett, 1998).

간호대학생은 졸업 전에 학교에서 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상 수행 능력을 습득할 때 간호사로서의 맡은 역할을 잘 수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실습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 능력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Kim & Park, 2019).

Thomas(2010)는 실습 중의 폭력이 간호대학생의 소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첫 1년간의 지속근무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임상 실습 후 폭력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규명하였다. 따라서 임상 실습 중에 발생하는 폭력은 간호대학생의 정서와 교육과정, 실습환경 적응이나 직업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 2013). 그러므로 실습 중인 간호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습 기관과 실습 학생 모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에게 실습 시 성희롱 피해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실습 기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예방 대책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 실태와 성희롱이 실습 중에 나타나는 업무 수행 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희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임상 수행 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에서의 성희롱, 임상 수행 능력,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에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실태와 성희롱이 임상 수행 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G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에서 다중회귀분석 중간 정도의 효과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Number of predictors) 4 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45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350명에게 배부하고 최종 319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원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며 작성된 설문지 및 관련 자료는 연구종료 후 즉시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3. 측정변수

1) 성희롱 경험

성희롱 경험에 관한 측정 도구는 Lee(2007)가 개발한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Park & Na(2015) 설문지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체적 성희롱 6문항, 언어적 성희롱 10문항, 시각적 성희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Jon(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 척도의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긍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였다.

3) 임상 수행 능력

임상 수행 능력의 측정도구는 Schwi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 et. al.(2010)이 개발한 임상 수행 능력 측정 도구를 Choi(2005)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임상 수행 능력을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였고, Choi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자아존중감, 임상 수행 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성희롱, 자아존중감, 임상 수행 능력과의 관계는 상관 관계분석으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n=261, 81.8%), '남학생'(n=58, 18.2%)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n=297, 93.1%), '3학년'(n=22, 6.9%), 주요 연령으로는 '20-23세'(n=205, 64.3%), '24-26'(n=89, 27.9%), '27세 이상'(n=25, 7.8%)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n=232, 72.7%), 성희롱 경험 병원으로는 '대학병원'(n=120, 58.3%), '종합병원'(n=86, 41.7%)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58	18.2
	Female	261	81.8
School Grade	3rd Grade	22	6.9
	4th Grade	297	93.1
Age(yr)	20-23	205	64.3
	24-26	89	27.9
	27 more	25	7.8
Sexual harassment damage status	Yes	232	72.7
	No	87	27.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120	58.3
	General hospital	86	41.7

2. 임상 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 관련 내용

임상 실습 중 성희롱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심각하다'(n=147, 46.1%), '매우 심각하다'(n=64, 20.1%), '잘 모르겠다'(n=53, 16.5%), '심각하지 않다'(n=49, 15.4%), 순이었다. 임상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횟수로 '1회'(n=112, 48.3%), '2-5회'(n=111, 47.8%)순으로 많았으며 성희롱 가해자로 '환자'(n=239, 74.9%), '환자 보호자'(n=20, 6.3%), '의사'(n=19, 6.0%), '직원'(n=13, 4.0%), '간호사'(n=12, 3.8%)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연령대로 '50대'(n=123, 38.6%)가 가장 많았으며, '40대'(n=102, 32.0%), '30대'(n=45, 14.1%), '60대'(n=26, 8.2%), '70대 이상'(n=12, 3.8%), '20대'(n=11, 3.3%)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임상실습장소로 '일반병실'(n=207, 64.9%), '정신과 병실'(n=73, 23.0%), '외래'(n=18, 5.6%), '응급실'(n=10, 3.1%), '수술실'(n=8, 2.5%)순으로 많았다.

"임상실습 전에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n=210, 65.8%), '있다'(n=109, 34.2%)였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불만족'(n=142, 44.5%),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원한다'(n=97, 30.4%), '부족하다'(n=36, 11.3%), '만족한다'(n=19, 6.0%)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성희롱 피해 경험후 대처방법

임상실습 중에 성희롱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할 것

Table 2 Content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wareness of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very serious	64	20.1
	Serious	147	46.1
	Not serious	49	15.4
	Not serious at all	6	1.9
	Not sure	53	16.5
Frequency of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1 time	112	48.3
	2-5 times	111	47.8
	6-9 times	2	0.9
	10times more	7	3.0
Sexual harassment offender	Doctor	19	6.0
	Nurse	12	3.8
	Staff	13	4.0
	Patient	239	74.9
	patient guardian	20	6.3
	Etc	16	5.0
Age range of sexual harassment offenders	20s	11	3.3
	30s	45	14.1
	40s	102	32.0
	50s	123	38.6
	60s	26	8.2
	70s more	12	3.8
Sexual harassment occurring place	Outpatient hospital room	18	5.6
	Emergency room	10	3.1
	Operating room	8	2.5
	Psychiatric ward	73	23.0
	General ward	207	64.9
	Etc	3	0.9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Yes	109	34.2
	No	210	65.8
A Study on the View of Sexual Harassment Education	Satisfaction,	19	6.0
	Lack	36	11.3
	Concrete and realistic education needs	97	30.4
	I don't know	25	7.8
	Dissatisfaction	142	44.5

인가에 대한 답으로 가장 많은 간호학생들이 ‘수간호사에게 이야기 한다’(n=163, 51.1%), ‘실습담당교수에게 이야기 한다’(n=75, 23.5%), ‘피해자를 돕는다’(n=53, 16.6%), ‘모른체 한다’(n=28, 8.8%)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 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병실 간호사 또는 수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n=176,

55.2%), ‘실습담당교수’(n=79, 24.8%) ‘지도교수’(n=30, 9.4%), ‘친구’(n=19, 6.0%),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n=6,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실습담당교수나 지도교수에게 이야기한다’(n=196, 61.4%), ‘병실 간호사에게 이야기 한다’(n=149, 46.7%),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 한다’(n=136,

Table 3.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fter experien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Witnessed sexual harassment	Pretend not to know	28	8.8
	Help the victim	53	16.6
	Talk to a nurse	163	51.1
	Talk to a hands-on professor	75	23.5
Helper Calls After Sexual Harassment	Friend	19	6.0
	Senior	5	1.5
	Ward nurse or head nurse	176	55.2
	Practical professor	79	24.8
	Advising professor	30	9.4
	Parent	4	1.3
Respond to SH during clinical practice (multiple response)	Unrequested help	6	1.8
	Have patience because of the hardness to protest	17	5.3
	Directly ask the offender to stop	102	32.0
	Talk with my friend	136	42.6
	Talk to nursing offices	149	46.7
	Report to nursing school professor	196	61.4
	Counsel NGO group	15	4.7
	Talk with my family	37	11.6
	Stop to nurse practices	8	2.5
	Sexual harassment solution (multiple response)	Student's own caution	87
There is no solution		19	6.0
Hospital-level solution		212	65.5
Legal solution		114	35.7
The preventive education is received		85	26.6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not activity respond to SH during clinical practice	Not expecting much help	63	19.8
	Afraid that it'll make you uncomfortable	22	6.9
	Don't know how to do	127	39.8
	Not having courage	11	3.5
	Retaliation from the perpetrator	23	7.1
	Without evidence	19	6.0
	Being afraid of the nursing school getting disadvantages	54	16.9
Effective ways to prevent SH	As in the current law	18	5.6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offender	286	89.7
	Observe	13	4.1
	Be harsh and over worked	1	0.3
	Not punish	1	0.3

42.6%), ‘가해자에게 이야기 한다’(n=102, 32.0%), ‘가족에게 이야기 한다’(n=37, 11.6%), ‘그냥 참는다’(n=17, 5.3%), ‘사회단체와 상담하겠다’(n=15, 4.7%), ‘실습을 중단하겠다’(n=8, 2.5%), 순이었다. 임상실습시 성희롱 해결 방안에 대한 대답을 복수 응답한 결과 ‘병원차원에서 해결해주시기를 원함’(n=212, 65.5%), ‘법적으로 해결을 원함’(n=114, 35.7%), ‘학생스스로 조심’(n=87, 27.3%),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겠다’(n=85, 26.6%) 순이었으며 임상실습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n=127, 39.8%),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n=63, 19.8%), ‘학교가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 중단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n=54, 16.9%), 그 외에도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n=23, 7.1%), ‘증거가 없어서’(n=19, 6.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성희롱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를 원함’(n=286, 89.7%)이 가장 많았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자아존중감, 임상 수행 능력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임상 수행 능력,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같이 나타났다. 성희롱은 성별(F=-3.20, P<.01), 성희롱 피해 경험 유무(F=3.39, P<.001), 성희롱 가해자(F=2.62,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상수행 능력은 성희롱 피해 경험 유무(F=-21.36, P<.001), 성희롱 발생 장소(F=-2.76,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F=2.29, P<.05), 성희롱 피해경험 유무(F=27.28, P<.001), 성희롱 가해자(F=-3.12,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임상 실습중인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행위, 임상 수행 능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Table 4. Differences of sexual harassment, self-esteem,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Sexual harassment M±SD	t / F(p)	Clinical competence M±SD	t / F(p)	Self-esteem M±SD	t / F
Sex	Male	1.21±0.22	-3.20**	3.07±0.74	1.84	3.04±1.36	2.29*
	Female	1.32±0.34		2.88±0.61		2.62±1.25	
School Grade	3 Grade	1.24±0.27	-1.03	2.82±0.57	-0.71	2.86±1.54	0.60
	4 Grade	1.31±0.33		2.92±0.65		2.69±1.26	
Age	20-23yr	1.32±0.35	1.24	2.89±0.61	0.42	2.64±1.24	0.82
	24-26yr	1.27±0.28		2.92±0.68		2.80±1.38	
	27yr more	1.25±0.25		3.02±0.74		2.89±1.2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Yes	1.35±0.36	3.39***	2.53±0.34	-21.36***	1.88±0.61	27.28***
	No	1.23±0.24		3.58±0.46		4.14±0.76	
Sexual harassment offender	Doctor	1.39±0.57a	2.62*	2.84±0.73	1.97	2.57±1.23	-3.12**
	Nurse	1.32±0.39ab		3.04±0.81		3.06±1.34	
	Staff	1.12±0.08b		2.95±0.76		2.16±1.33	
	Patient	1.33±0.31ab		2.87±0.63		2.57±1.39	
	Patient uardian	1.21±0.24ab		3.01±0.50		2.70±1.32	
	Etc	1.13±0.12b		3.35±0.57		2.68±1.26	
Sexual harassment occurring place	Outpatient Hospital room	1.28±0.46	0.81	3.27±0.74ab	2.76*	2.98±1.35	1.67
	Emergency room	1.43±0.45		2.88±0.60b		3.33±1.13	
	Operating room	1.23±0.20		3.41±0.93a		3.32±1.35a	
	Psychiatric ward	1.32±0.26		2.79±0.50b		2.57±1.33ab	
	General ward	1.29±0.33		2.90±0.65b		3.51±1.62a	
	Etc	1.55±0.65		3.01±0.49ab		2.40±1.17ab	

*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Sexual harassment act	Clinical competence	Self-esteem
Sexual harassment act	1		
Clinical competence	-0.016*	1	
Self-esteem	-0.139*	0.692***	1

* p<.05, ** p<.01, *** p<.001

(<Table 5>). 성희롱 행위와 임상 수행 능력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016,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139,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수행 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692, p<.001$)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시에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경험실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성희롱이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무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가 53.7%로 나타났다(Lee, 2003) Park(2013)의 연구에서는 1년 이내에 성희롱피해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71.1%로 조사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Kim & Park(2019)연구에서 59.4%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58% 실습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Woo(2017)의 연구에서는 39.8%, Jang & Lee(2019) 연구에서도 60.9%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가 72.7%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실습 중인 간호대학생들이 짧은 임상실습기간중에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를 막론하고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임상 실습중인 간호학생의 경우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고 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성희롱 피해 경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Tee & Russil, 2016; Ferns, 2008).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Budden, 2017).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간호대학이나 임상실습기관 모두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성희롱에 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발생시 대처방법, 보고 체계를 작성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 종료후에도 실습기간과 함께 공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의 주 가해자로 환자 74.9%, 환자보호자 6.3%, 의사 5.9%순으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o(2012) 연구에서도 환자가 87.3%, 2013년 보건 의료 노조에서 2만 2,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환자에 의한 성희롱이 54.4%, 보호자 46.2%, 의사 24.1%순으로 나타났으며, Kim(2014)의 연구에서 환자가 7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Woo(2017)연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83%, 의료인이 53.4% 순이었으며, Kim, et. al.(2017)연구에서 93.8%가 환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3), Ko(2013), Park(2015) 연구에서는 의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병원내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병원노동자 성희롱 가해자로 의사(교수)가 53%, 환자, 환자 보호자가

14%.(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08)로 나타났으나 보건 의료 노동자 실태조사(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15)에 의하면 환자에 의한 성희롱이 33.4%,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이 29.4%, 의사 16%, 상급자 14%순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은 감소하고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은 증가추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8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법적 규정화되고 난 뒤 직장 내 성희롱이 감소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나 환자보호자에 의한 성희롱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대학생의 경우 병원 실습지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으나 간호대학과 병원과의 계약 관계에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지침을 주거나 공식화시키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희롱 가해자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40대가 가장 많았다(Im, 1999; Kim, 2008; Lee, 2018; Kim, 2014).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주 연령대는 40-50대가 7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40대와 50대가 70.6%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과거 성희롱 가해자로 4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위드유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20대나 30대의 경우는 충분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여 동참하고 있고 40대와 50대는 남성 중심의 사고와 사회적 변화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는 실습장소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이 64.9%로 정신과병동 22.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일반병동이 75.3%, 정신간호 관련 시설이 35.1%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Lee, *et. al.*, 2011; Arulogun, *et. al.*, 2013; Lancton, 2014; McKenna & Boyle, 2016)와 일치했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부서별 조사(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08)에 의하면 성희롱 발

생이 일반병동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9%, 수술실 8%, 외래 8%순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장소가 대부분이 성인간호 교과목으로 일반병동 실습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Kim(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정신과 병동이 42.4%, 일반병동이 25.1%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경우 성희롱 발생장소를 부서별 조사한 Lee(2003)의 연구에서는 수술실에서 성희롱 발생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Ko(2013)의 선행연구에서도 수술실이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 실습 중에 성희롱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수간호사에게 이야기한다’(n=163, 51.1%), ‘실습 담당 교수에게 이야기한다’(n=75, 23.5%), ‘피해자를 돕는다’(n=53, 16.6%), ‘모른체 한다’(n=28, 8.8%)순으로 답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 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병실 간호사 또는 수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n=176, 55.2%), ‘실습 담당 교수’(n=79, 24.8%)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했으며 임상실습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 한 결과 ‘실습 담당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이야기한다’(n=196, 61.4%), ‘병실 간호사에게 이야기 한다’(n=149, 46.7%),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한다’(n=136, 42.6%), ‘가해자에게 이야기 한다’(n=102, 32.0%), ‘가족에게 이야기 한다’(n=37, 11.6%), ‘그냥 참는다’(n=17, 5.3%), ‘실습을 중단하겠다’(n=8, 2.5%) 순이었다.

2015년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대부분이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51%, ‘주위 도움을 요청했다’가 43.5%, ‘법적인 대응’ 20.9%로 나타났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3%에 불과했다(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15). 또한 Kim(2014)연구에서도 ‘항의하기 힘들어 참는다’가 57%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2012)의 연구에서는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으로 '상사에게 해결요청이 80.0%', '사직하겠다'가 6.9%, '직장내 상담창구 이용과 부서이동 요청이' 3.4%, '참고 지나가거나 가해자와 직접대면해서 해결하겠다'가 각각 2.8%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본 연구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n=127, 39.8%),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n=63, 19.8%)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Kim, et. al.(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59.2%,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46.1%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교와 학생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여 담당하지 못하고 위축된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간호대학생들이 참고 은폐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학교나 실습병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임상실습 시 성희롱 해결 방안에 대한 대답을 복수 응답한 결과 '병원차원에서 해결해줄기를 원함'(n=212, 65.5%), '법적으로 해결을 원함'(n=114, 35.7%), '학생스스로 조심'(n=87, 27.3%),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겠다'(n=85, 26.6%) 순이었으며 성희롱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으로 본 연구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를 원함'(n=286, 89.7%)이 가장 많았다. Cho(2012)의 선행연구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병원차원에서 가해자 처벌이 38.3%, 국가에서 법적처벌강화 35.9%, 고소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가 17.6% 나타났으며 Oh(2003), Kim(2008), Kim(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전에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n=210, 65.8%), '있다'(n=109, 34.2%)였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불만족'(n=142, 44.5%),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원한다'(n=97, 30.4%), '부족하다'(n=36, 11.3%), '만족한다'(n=19, 6.0%)순으로 나타나 Kim(2014)의 연구에서 '성희롱 교육을 받지 않았다'(45%)보다 다소 높은 것을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답한 간호대학생이 44.5%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사례중심이면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의 2(성희롱 방지등)와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등)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어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으나 대학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지에서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57점(5점 만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한 Park & Na(2015)의 연구에서는 3.18점이었고, Hwang(2008)의 연구에서는 3.09점, 대학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15)의 연구에서는 3.04점,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3.02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성희롱 피해유형과의 관계는 역상관관계가 ($r=-.139, p<.0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전문가들이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Losa, et. al., 2012; Arulogun, et. al., 2013; Khan, 2015; Kim, et. al., 2017)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피해 경험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Hwang, 2008; Choi, et. al., 2013; Park, 2015; Cho & Lee, 2018; Lee, 2018; Lee & Choi, 2020)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이 성희롱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성은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성희롱은 간호대학생에게 굴욕감을 주어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피해경험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임상 수행 능력과 성희롱 행위와 임상 수행 능력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016,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상관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3.37 ± 0.55 (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Jeong(2018)의 연구(3.48)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 Park(2019)의 3.20 ± 0.39 (5점 만점), Lee & Gu(2013)연구와 Park & Park(2016)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성희롱으로 인한 임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긴장으로 이어져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2011). 따라서 실습 교육에서 임상현장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 능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 경험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학교와 실습병원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해 보인다. 실습기관은 직원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 중인 대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고(Budden, et al., 2017) 간호교육기관은 미래의 간호사가 되는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실습병원 역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내용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처방안까지도 포함하여 현

실성 있는 교육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임상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기관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예방,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9-0282)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References

- Arulogun, O. S., I. K. Omotosho, and M. A. Titiloye. 201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Strategies among Students of the School of Nursing of a Tertiary Hospital in Southwest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5(4): 70-75.
- Bang, Kyung Sook and Jin Kyong Cho. 2008.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88-97.
- Barrett, C. and F. Myrick.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 Brinner, G., C. Peretz, and M. Ehrenfeld. 2003. Sexual Harass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2(6): 637-644.
- Budden, L. M, M. Birks, R. Cant, T. Bagley, and T. Park. 2017. Australi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Bullying and/or Harass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 *Coolegion*. 24(2): 125-133.
- Celik, S. S. and N. A. Bayraktar. 2004. Study of Nursing Student Abuse in Turke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7): 330-336.

- Celik, Y. and S. S. Celik. 2007. Sexual Harassment against Nurses in Turke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9(2): 200-206.
- Cho, Hye Eun and Bo Ram Lee. 2018.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6): 1003-1012.
- Cho, Sun-Hee. 2012. Nurse's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Its Reality: An Influence on Working Condition in University Hospital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 Choi, Mi Suk. 2005. A Study on the Professors' Efficiency and Clinical Performance of Clinical.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Seo Ewn, Sam Soon Lee, and Sam Doll Kim. 2013. Relationships of Workplace Bullying to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at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Korean J Occup Health Nurse*. 22(4): 267-274.
- Chu, Su Kyung and Eun Mi Jun. 1998. Process of the Nursing Students Decision-making for Their Course and Job.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ing Education*. 4(2): 280-295.
- Ferns, T. and L. Meerabeau. 2008. Verbal Abus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4): 436-444.
- Gjerberg, E. and L. Kjolsrodb. 2001. The Doctor-nurse Relationship: How Easy Is It to Be a Female Doctor Cooperating with a Female Nurse. *Social Science & Medicine*. 52(2): 189-202.
-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08. A Survey on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n Hospital. <http://bogun.nodong.org>.
-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2015. A Survey of Health and Medical Workers. <http://bogun.nodong.org>.
- Hwang, Seon Suk. 2008.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Nurses: Experience of Violence and Their Self-Esteem.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 Im, Dong Jean. 1999. A Study on Cognition of Sexual in Work Place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Jang, Sun Young and Ha Ny Lee. 2019. The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553-561.
- Jon, Byung Jae. 1974. Self-Esteem: A Test of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Nonchong*. 11(37): 107-130.
- KBS News. 2018. 11. 5. 50% of Professional Women Hav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66977>
- Keely, B. R. 2002.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Hospital Violence. *Dimens Crit Care Nurs*. 21(6): 236-241.
- Khan, N., S. Begum, and A. Shaheen. 2015. Sexual Harassment against Staff and Student Nurses in Tertiary Care Hospitals Peshawar Kp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4(1): 285-292.
- Kim, Jeong Yun and Byung Jun Park. 2019. The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on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2): 73-82.
- Kim, So Yong. 2008. The Recognition of Nurses about Sexual Harassment Department of Forensic.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 Kim, Tae Im, Jung Yun Kwon, and Mi Jong Kim. 2017.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e*. 23(1): 21-32.
- Kim, Yi-Youn. 2014. The Perception and Actual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 Kim, Yu Jeong and In-Ju Jeong. 2018.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3): 297-308.
- Ko, Jean Hee. 2013. The Recognition,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ab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of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6. Standard of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http://kapon.or.kr/kapon02/150112_a.pdf
- Lancôtin, Guay S. 2014. The Aftermath of Workplace Violence among Healthcare Worker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Consequenc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5):

- 492-501.
- Lee, Ju Young. 2003. (An) Inquiry into the Realities of Sexual Harassment of Nurse: Employed in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Oi Sun and Mi Ok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1749-2759.
- Lee, Sue Jean. 2018.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5): 955-962.
- Lee, Sun Mi. 2015. Influencing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Lee, Sung-Lim and Jeong-Hee Choi. 2020. Awareness and Convergence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39-44.
- Lee, Sun-Kyoung, Ju-Eun Song, and Sue Kim. 2011.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5(3): 170-176.
- Lee, Won Hee, Sang Hee Kim, and Ji Hyun Ahn.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li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s for Nurse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10: 221-221.
- Lee, Young Eun.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ual Harassment Scale of College Femal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glesias, M. E. Losa and R. Becerro de Bengoa Vallejo. 2012. Prevalence of Bullying Artwork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Scores in a Spanish Nurse Sample. *Contemporary Nurse*. 42(1): 2-10.
- Martino, V. 2016.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 Sector-country Case Studies: Brazil, Bulgaria, Lebanon, Portugal, South Africa, Thailand and an Additional Ausyralian Study. 29, Aug.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McKenna, L. and M. Boyle. 2016. Midwifery Student Exposure to Workplace Violence in Clinical Settings: An Exploratory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7: 123-127.
- Oh, Hee Jean. 2003.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of Female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Park, Eun Kyung and Yeon Kyung Na. 2015.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Damages and Self-esteem of Operating Room Nurses.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9(4): 266-274.
- Park, Eun Kyung. 2015. The Relation of Verbal Abuse, Sexual Harassment and Self-esteem of Operating Room Nurse.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 Park, Hyun Jung, Hee Sun Kang, Kyung Hee Kim, and Hye Jin Kwon. 2011. Exposure to Workplace Violence and Coping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3): 291-301.
- Park, Hyun Jung. 2011. Exposur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to Workplace Viole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Park, Jeong Ewn. 2013. Nursing Student's Experience, Their Response and Coping Method of Violence in Clinical Se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Park, Mee Young and Wan Ju Park. 2016.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Self-Assertiveness of Hospital Nurses Incommunity on Awarenesses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10(4): 318-32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aperbacks. No. 11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rian, P. M. 1978. Evaluation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27(6): 347-351.
- Tee, Stephen, Yeter Sinem Üzar Özçetin, and Michele Russell-Westhead. 2016.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A UK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41: 30-35.
- Thomas, C. M. 2010. Teaching Nursing Students and Newly Registered Nurses Strategies to Deal with Violent Behaviors in the Professional Practice Enviornment. *The Journal of Continuity Education in Nursing*. 41(7): 299-308.
- Wang, L. J., C. K. Chen, Y. C. Sheng, P. W. Lu, Y. T. Chen, H. J. Chen, and J. S. Lin. 2012.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Two General Hospitals in Taiwan: The Incidence, Perception, and Gender Differences. *J Occup Health*. 54(1): 56-63.

Woo, Jung Ae. 2017. Emotional Responses, Coping and Social Support for Verbal Abuse, Sexual Harassment, Physical Threat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고진희. 2013. 병원간호사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소용. 2008. 병원 간호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유정, 정인주. 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3): 297-308.

김이영. 2014. 간호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와 병원실습에서의 성희롱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정운, 박병준. 2019.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연구학회지. 3(2): 73-82.

김태임, 김미중, 권윤정. 2017. 일 지역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심각성 인식 및 자아존중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1): 21-32.

박미영, 박완주. 2016. 일 지역 병원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주장성이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수사학회지. 10(4): 318-328.

박은경, 나연경. 2015.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성희롱 피해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9(4): 266-274.

박은경. 2015.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성희롱 피해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박정은. 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폭력 경험과 반응 및 대처.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박현정, 강희선, 김경희, 권혜진. 2011. 중환자실 간호사의 폭력 경험과 대처. 한국정신간호학회지. 20(3): 291-301.

박현정. 2011. 중환자실 간호사의 폭력 경험과 대처.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방경숙, 조진경. 2008.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88-97.

오희진. 2003. 중·고등학교 여교사들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우정애. 2017.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영: 대처 및 사회적지지.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선경, 송주은, 김수. 201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지. 5(3): 170-176.

이성림, 최정희. 2020.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과 융합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9): 39-44.

이수진. 2018. 간호대 학생, 성희롱인식, 자아존중감, 성 역할 고정관념, 자기주장.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5): 955-962.

이순미. 2015. 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이영은. 2007.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이외선, 구미옥. 20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 수행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1749-2759.

이원희, 김상희, 안지현. 2010. 간호사의 임상 수행 능력 측정도구 개발 및 평가. 한국간호과학학회지. 10: 221-221.

이주영. 2003.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동진. 1999. 직장내에서의 성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장선영, 이한이. 2019.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6): 553-561.

전국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2008.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도자료. 병원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 <http://bogun.nodong.or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http://bogun.nodong.org>.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학회지. 11(1): 107-130.

조선희. 2012. 대학병원 간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성희롱이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학대학교.

조혜은, 이보람. 2018. 치위생(학)과 학생의 성희롱 인식 및 임상실습 시 성희롱 경험 실태. 한국치위생학회지. 18(6): 1003-1012.

최미숙. 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효율성과

-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소은, 이삼순, 김상돌. 2013.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약자 괴롭힘과 자아존중감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2(4): 267-274.
- 추수경, 전은미. 1998. 간호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80-295.
- 황선숙. 2008.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KBS News. 2018년 11월 5일자. 전문직 여성 50% 직장내 성폭력 경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66977>

Received: Nov. 26, 2020 / Revised: Dec. 16, 2020 / Accepted: Dec. 16, 2020

임상실습지에서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성희롱이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지에서 경험하는 성희롱이 자아존중감과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 3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상 실습지에서 간호대학생들의 72.73%가 주로 환자(74.9%)로부터 성희롱피해를 경험하고 피해 장소로 일반병실(64.9%) 병실이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피해를 경험했을 때 병실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병원차원에서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성희롱 행위와 자아존중감, 임상 수행 능력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임상 수행 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임상실습시 간호대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예방,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성희롱, 자아존중감, 임상 수행 능력

Profiles **Cheung Sook Choi** : She received Ph.D.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 2010.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G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Major research is A Study on the welfare policies for nurse, A Study on a actual condition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Prediction model in 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 in kangwon province. etc.(ccs4009@hanmail.net).

Yeon Ran Hong : She received Ph.D.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1.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ajor research area concludes life-cycle nursing, development and growth, and health promotion(yrhong@sunchon.ac.kr).